

◇2mm 흉강경을 이용한 교감신경절단술

이재웅, 성숙환, 김영태, 김주현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

배경 및 목적 : 1992년 10mm 또는 5mm 흉강경을 이용한 흉부 교감신경절제술이 도입되어 많은 병원에서 수술이 시도되어왔고 최근 2mm 흉강경의 도입으로 미용적인 면이 우수하고 수술시간이 단축되어 기존의 방법에 비해 월등한 결과를 보여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방법 : 1997년 6월부터 1998년 5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에서 다한증으로 교감신경절단술을 받은 17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본연구를 시행하였다. 남자 101명, 여자 71명이었으며 환자의 나이는 12세에서 60세로 평균 27.2세였다. 환자를 주증상에 따라서 분류하면 수장부 다한증 63명, 액와부 다한증 7명, 안면부 다한증 18명이었다. 또한 수장부와 액와부 다한증 64명, 안면부와 액와부 다한증 3명, 수장부와 안면부 다한증 3명, 수장부, 액와부, 안면부 모두 포함된 다한증이 14명 이었다.

결과 : 수술은 96명의 환자에서 T2 교감신경절단술, 76명의 환자에서 T2, T3 교감신경절단술을 시행하였다. 수술시간은 20분에서 180분까지 평균 44.9분으로 1997년 1월부터 1997년 4월까지 수장부 다한증 4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mm 흉강경을 이용한 교감신경절제술[sympathectomy]의 수술시간 61분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재원기간은 1.70 ± 0.65 일이었고 이를 기간별로 나누어보면 97년 6월부터 98년 1월까지 2.08 \pm 0.48일, 98년 2월부터 98년 5월까지 1.05 \pm 0.28일이었다. 수술후 부작용으로는 기흉이 14례에서 생겼으며 이중 8례에서 흉관을 삽입하여 대 부분 다음날 제거하였다. 한명의 환자에서 호너증후군이 생겼으며 이환자는 유착이 심해 박리가 어려웠던 경우였다. 손끝, 팔, 가슴, 등쪽에 통증을 느끼거나 저리다고 호소하는 환자가 22명이었으며 순환기에 생긴 부작용으로는 한명에서 심방세동이 생겼으며 퇴원후 영구 심박동기[permanent pacemaker]를 삽입하였다. 수술후 모든환 자에서 손에 땀이 전혀 나지 않았으며 발의 땀도 많은 환자에서 감소하였다. 대상성 과발한은 172명중 110명[64%]에서 뚜렷이 나타났고 17명[10%]에서는 수술전보다 약 간 늘어났으나 불편한 점은 없었다.

결론 : 이상의 결과로부터 다한증 환자를 대상으로 2mm 흉강경을 이용한 교감신경절단술의 수술시간은 과거 시행되던 교감신경절제술에 비해 유의하게 단축되었으며, 미용상으로도 환자에게 월등한 만족감을 주었다. 수술후 호너증후군, 심부정맥등 심각한 합병증 또한 교감신경절제술과 차이가 없었고 당일 입원, 수술 및 퇴원이 가능해져 2mm 흉강경을 이용한 교감신경절단술은 다한증 수술에 매우 만족스러운 수술방법이다.